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혹한기 대비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김영찬기자 | 승인 2026.11.10 18:10 | 11면

> 기온 강하 따른 현장 근로자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미끄러짐·낙상 겨울철 사고 위험 요인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다가오는 겨울철 혹한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온 강하에 따른 현장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미끄러짐·낙상 등 겨울철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령지사는 이번 점검에서 겨울철 한파 대비 근로자 쉼터 설치 및 방한용품 지급 상태, 옥외 작업 시간 조정 여부를 세심히 살폈다. 또한, 지반 침하 및 동결·융해에 따른 토사 붕괴 위험 지역, 용접 및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 요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수급인 및 공사감독에게 즉시 통보하여 현장 조치를 유도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재경 지사장은"혹한기 건설현장은 기온 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현장 점검과 동절기 안전대책 이행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